

광주일보·조선대병원 공동기획  
**암** 아는만큼 이긴다

〈16〉 간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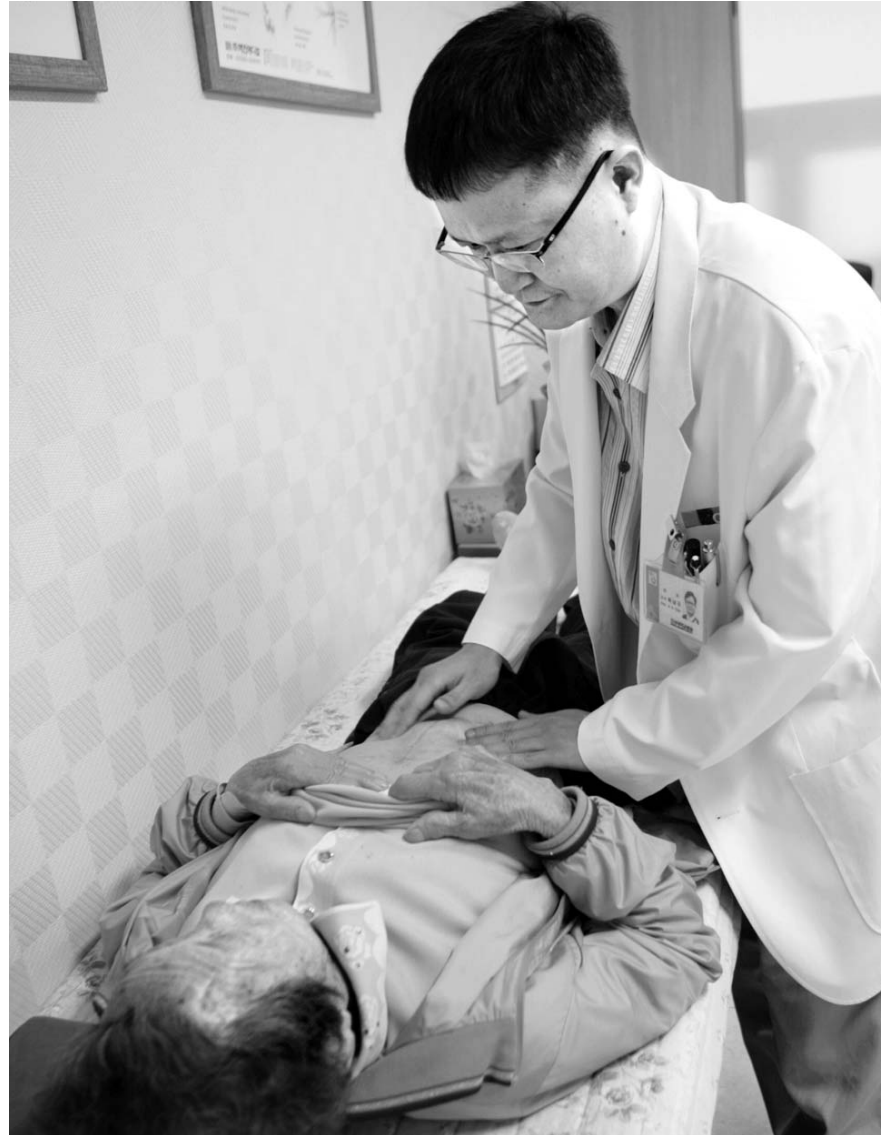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 만성간염·간경변 환자 확률 높아... 정기검사 꼭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의 약 90%는 간세포암이고, 약 10%는 담관세포암이며 그 외 아주 일부가 기타 암이다. 간세포암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흔히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을 지칭한다. 간암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나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간암은 우리나라 남성의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3위이며, 특히 40~50대 남성에서는 암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간암의 원인과 증상=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지속적인 많은 양의 음주, 간경변 등이다. 간암의 약 80%는 간경변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나머지 20%의 대부분은 만성 B형 혹은 C형 간염에서 발생한다. 과도한 음주는 그 자체로도 알콜성 간경변증과 간암의 발생을 유발하며, 다른 만성간질환에 의한 간암 발생도 촉진하기 때문에 만성 간질환환자들의 경우에 특히 급주가 중요하다.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콜에 의해 간의 파괴와 재생이 지속될 경우 간암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간은 침묵의 장이다. 그래서 간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 발견되는 간암은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간혹 우상복부 통

◇진단과 치료=간암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혈액에서 알파태아단백(alpha-fetoprotein, AFP)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에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초기 간암에서 알파태아단백이 유의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혈액검사만 믿으면 간암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간암 발생의 위험인자(만성 B형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콜성 간경변 등)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초음파나 CT, MRI 등 영상검사를 함께 해야만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 간암의 치료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적 치료와 종양의 진행을 막고 크기를 줄이는 비근치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근치적 치료로 최근에는 간 이식의 결과가 매우 우수해 완치도 기대할 수 있다. 대개 5



최남규 암센터 교수가 체중 감소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 초기엔 증상 없어 체중 감소·황달 증상 보이면 의심

## 음주 삼가고 예방접종 필수... 침 시술·문신 피해야

증, 체중 감소, 복부 종괴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진행된 경우에는 황달이 발생하기도 한다. 간암은 어느 정도 진행하면 급격하게 전신 쇠약이 오며, 경과가 매우 빨라서 곧 말기에 이르고, 말기에 이르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종괴에 의한 담도의 압박으로 황달이 나타나고 또 복부 내장의 혈류 장애로 복수가 생기기도 한다. 또 담도에 2차적으로 세균이 침입하거나 암 조직이 파괴되어 다른 알물 때보다 많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간이 나빠져 있어도 임상적으로 간 기능검사를 하면 심한 변화를 볼 수 없을 때가 많고, 이는 간 중에 암이 생기지 않은 건강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성간염이나 간경변 환자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증상이 없는 초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cm 이하의 단일 종양이거나, 3cm 이하로 3개 이하의 종양일 때 간 이식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암의 크기가 매우 커서 절제가 곤란할 경우에 간 이식을 하면 어떨까하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식 후 거의 대부분 재발한다. 수술로 간절제를 시행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암의 크기나 위치상 절제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환자의 잔여 간기능이 충분해야 한다. 셋째는 간 이외의 장기에 암이 퍼져 있지 않아야 한다. 간암은 폐, 부신, 뼈, 뇌 등으로 전이를 잘 한다.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쓰이는 비근치적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고주파를 이용해 간암을 태우는 고주파 열치료, 간암에 알콜을 주입해 간암 세포를 죽이는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간암에 영양

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막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다. 간암 치료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간암이 재발을 잘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간암 절제가 이루어졌다 해도 연간 재발률이 25%나 된다. 간암이 이렇게 재발을 잘하는 이유는 첫째, 수술시 미세한 병변이 이미 간의 다른 부위에 가 있거나 둘째, 거의 대부분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간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간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고,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 등의 근치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장기생존율이 매우 좋아 병변이 수술하기에 적당하고, 환자의 몸 상태가 좋고, 나이가 젊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방법=간암의 예방은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간암의 약 90%는 만성

B형간염이나 C형간염, 간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이 원인이다. 따라서, 간암의 일차적인 예방으로서는 B형 및 C형 간염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 B형 간염은 예방주사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항체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접종하도록 한다. C형 간염은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형 간염의 주된 전염 경로는 오염된 주사기나 비위생적인 침 시술, 문신 등의 피부 침습적인 시술이므로 피해야 한다. 간암 발생 위험요인인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대병원 암센터(외과) 최남규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손석준 교수 '...건강이 보여요' 출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석준(전남대 보건진료소장)교수가 최근 예방 의학을 전공하면서 틈틈이 쓴 글들을 묶어 '조금만 알면 건강이 보여요'(도서출판 기현)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1부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건강이란 ▲흡연과 음주 ▲비만 ▲질관관리 ▲암 등에 대해서, 2부에서는 봄·여름·가을·겨울 등 계절별 건강 가이드를 통해 현대인에게 올바른 건강 상식을 제공하고, 건강생활을 실천에 옮기는 지침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국립나주병원 내달 2일 'QI 학술대회'

국립나주병원(원장 배 안)은 오는 6월 2일 정신재활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2011년 QI(Quality Improvement)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립나주병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신병원에서의 QI활동의 필요성, 타기관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향상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고객 감동 경영'이라는 주제로 미래창조 연구소 김지환 소장이 발표를,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질 향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문소영 팀장,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화성전남대병원 박영미 팀장, '(정신)병원에서의 QI활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국립나주병원 김현영 QI팀장이 발표를 한다.

## '돌발성 난청' 청·장년층 발병률 늘어

전체환자 38.6%... 스트레스 원인 조기치료 중요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고도의 난청과 귀울림이 일어나는 '돌발성 난청' 환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및 혈관성 요인과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요인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돌발성 난청'은 주로 5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요즘엔 스트레스로 인한 청장년층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남대병원(원장 송은규)은 이비인후과에서 지난 8년간(2003년~2010년)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환자 986명을 분석한 결과, 50대~60대 환자가 466명으로 전체 환자의 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트레스 많은 청장년층(20대~40대) 환자도 381명으로 38.6%를 차지했다. 또한 연도별 환자를 분석해보면 2003년에 64명, 2007년 138명, 2010년은 169명으로 꾸준히 늘어 2003년 대비 2.6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의료선진국에서는 응급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귀가 울리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과 일어나 후 청력에 차이가 있을 때, 혹은 양쪽 귀로 번갈아 통화할 때 소리에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는 "돌발성 난청은 발병 1주일 이내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70%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늦게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률이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형호 교수는 "인체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혈류의 흐름에 장애가 생겨 달팽이관의 청각 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무직 노동자 등은 가끔씩 스트레스를 풀고, 각종 모인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면서 휴식을 통해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돌발성난청을 예방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 상안검 성형술

- 4. 상안검과 하안검에서 안륜근의 양과 모양
- 5. 안검 피부에서의 색소침착과 노인성 및 퇴행성 변화, 안와골의 형태 눈물샘의 하수 정도 등이다.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 1. 이마의 하수정도
- 2. 상안검과 하안검의 과도한 피부의 주름양과 정도
- 3. 양쪽 안검에서 돌출된 안와 지방의 양과 위치, 특히 상안검의 내측지방과 하안검의 외측지방.

수술은 쌍꺼풀선 없이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것과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대개 남자들은 쌍꺼풀선 없이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고 있으며, 여자들은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피부 제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동양인의 쌍꺼풀 높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6~8mm 정도이며 10mm이상 넘지 않도록 도안 하는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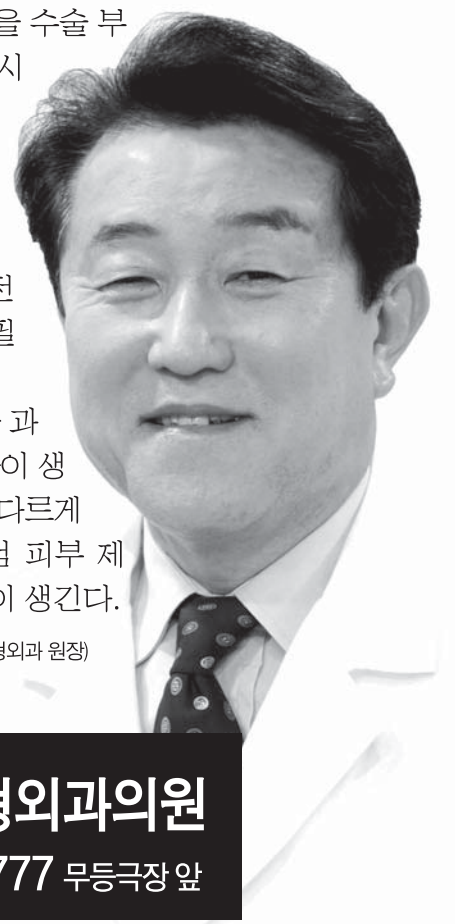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214-중-21551 광고

수술 후 12~24시간은 약간 압박 하면서 얼음 주머니에 의한 냉찜질을 수술 부위 반상 출혈이나 부종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세안은 7일정도 지나야 하며 눈화장도 7일 이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화장은 2주후에 하는것이 좋다. 무엇보다 수술전 환자와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작용으로는 상안검 피부를 과다하게 제거하면 상안검외반증이 생기며 양측 상안검 피부 제거를 다르게 하게되면 비대칭이되며 상안검 피부 제거한 부위가 염증이 오면 반응이 생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

성형외과 김영길 원장